

현충원·31사단도 5·18 학살 계엄군 호국영웅 둔갑

서울현충원 23명 추모비...육본 명예의 전당엔 대침투작전 전사자로 31사단 역사관 오인사격 사망 계엄군 3명·담양 11공수 11명도 군사연구가들 '광주학살 정당화 의도'...왜곡된 진실 바로잡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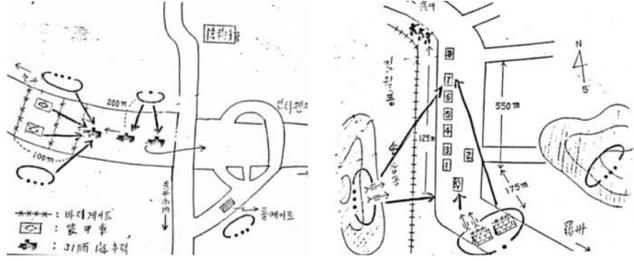
서울 전쟁기념관(광주일보 2019년 5월 1일자 1면)에 이어 국립서울현충원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부분의 현충시설에서 5·18민중항쟁 당시 광주 투입 계엄군 사망자를 조국수호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웅'으로 추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월 단체들은 5·18가해자인 계엄군은 국가 현충시설 등에서 추모하는 반면, 5·18희생자는 인터넷과 SNS는 물론 보수 정치권 등을 통해 폄하되는 잘못된 대한민국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국립서울현충원·31사단 역사관 등을 방문 취재한 결과, 오인사격 등으로 숨진 5·18 계엄군들이 전사자로 둔갑해 추모비 등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었다.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28묘역과 29묘역에는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다 사망한 계엄군 23명이 안장돼 있었다. 28묘역에는 부사관 이하 사병 20명이, 29묘역에는 위관급 장교 3명의 비석이 있었

다. 가로 50cm×세로 1m 크기 비석 정면에는 추서된 계급과 이름이 세로로 적혀 있었고 비석 뒷면 뒷쪽에는 묘비 번호, 오른쪽에는 사망일자, 왼쪽에는 사망장소가 뚜렷하게 적혀 있었다. 특히 오발사격으로 사망한 A일병을 제외한 22명의 묘비에는 '광주에서 전사'라고 새겨져 있었다. 이들은 서울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에 이름을 올린 계엄군과 동일했다. 광주를 수호하는 향토사단인 31사단이 2017년 조성한 역사관 내 전사자 추모공간에서도 5·18 당시 오인사격으로 사망한 사병 3명의 이름과 사망날짜, 전사자 표시를 확인할 수 있었다. 31사단 96연대 3대대 소속이었던 이들은 1980년 5월24일 영광의 주둔지로 복귀하던 중 광주투발기탄 인근에 매복하고 있던 전교사 기갑학교 부대원들과의 오인사격으로 사망했다. 31사단 관계자는 "조국을 지키다 희생한 선배들을 기리고 후배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역사관을 조성했다"며 "명단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5·18 당시 31사단 사망자 묘비에 '광주에서 전사'로 새겨져 있다.

은 육군본부가 2004년 배부한 '전사자 명부'를 따랐다"고 해명했다.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 내 '육군 명예의 전당'에도 계엄군 사망자들을 대침투작전 수행 중 목숨을 잃은 전사자로 현액(獻額)하고 있었다.



육군본부가 5·18 직후 작성한 '광주소요사태분석'을 보면 군은 31사단과 기갑학교(왼쪽), 11공수여단과 보병학교의 오인사격을 파악하고 있지만 사망자는 모두 전사자 처리했다.

광주일보가 입수한 '육군 군사업무 규정' 제5장 명예선양 업무를 살펴보면, 육군은 창군 이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의 뜻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고 있다. 명예의 전당 현액자들은 6·25전쟁, 베트남전쟁, 대침투·국지도발대비작전 중 사망자로 구분돼 있는데, 5·18계엄군 사망자는 대침투전 전사자로 현액 돼 있다. 이 밖에도 담양 11공수여단내 현충탑에도 5·18 당시 사망한 11공수 부대원 11명이 전사자로 표기돼 있다는 게 지난 2일 해당 부대를 방문한 5월 단체 관계자들의 말이다. 지역군사연구가들은 전두환 신군부가

오인사격으로 계엄군이 사망한 경우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광주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사자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같이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지역 정치권 등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시민을 총으로 쏘아 죽인 계엄군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로 추앙받고, 정작 희생당한 광주시민은 '괴물집단', '북한군' 등으로 폄하되고 있는 현실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눈물의 어린이날

30대 부부, 2·4살 자녀 안고 렌터카서 숨진 채 발견

'어린이 날'인 5일 농로에 주차된 렌터카에서 30대 부부가 4살, 2살된 어린자녀를 안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새벽 4시 15분경 경기도 시흥시 한 농로에 세워진 렌터카 안에서 A(34)씨와 아내(35), 아들(4), 딸(2) 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렌터카 업체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새벽 0시 30분 반납 예정이던 차가 돌아오지 않자, GPS를 추적해 차를 가지러 갔다가 A씨 가족이 숨진 것을 발견했다. 당시 차량 조수석에는 다 단 번개탄 2개가 놓여 있었으며, 차량 뒷자석에는 A씨가 아들, 부인은 딸을 품에 안은 채 숨져 있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최근 실직한 A씨가 7000여만원에 이르는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유족 등의 진술에 따라 사건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어린이날 연휴 교통사고...잇단 일가족 참변

진도서 택시-음주 승용차 충돌 고향 가던 남매 등 3명 사망 영암선 가족 나들이 차량 전복

어린이날과 주말이 겹친 연휴 동안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6일 진도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40분경 진도군 의신면 침계리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박모(29)씨가 몰던 제네시스 승용차는 마주 달리던 조모(58)씨의 K7택시와 충돌해 세남매가 숨지거나 다쳤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조씨와 승객인 박씨 자매((59·58) 등 3명이 숨지고, 택시에 타고 있던 남동생 박모(55)씨와 남동생의 여자친구 정모(54)씨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를 낸 박씨는 음주 측정 결과 운전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 남양주 등 타지에서 살고 있는 세

남매는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치료를 마치는대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7시경에는 영암군 영암읍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김모(여·51)씨가 몰던 익스플로러 SUV 차량이 오른쪽 가드레일에 부딪혀 전복돼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다. 사고로 운전자 김씨가 숨지고, 남편 나모(53)씨와 딸(21), 손주 백모(7)군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이송됐다. 이 가족은 영암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광주 근교로 나들이를 다녀오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차로를 주행하던 김씨의 차가 앞서 달리던 진도 변경을 하러던 승용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날 낮 12시경에는 영암군 신북면 한 농로에서 안모(76)씨가 경운기에 깔린 것을 주린이 발견,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안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6일 새벽 진도군 의신면 침계리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와 K7택시가 충돌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전남경찰청 제공>

17년간 지적장애인 농사 착취 공분 산 부부 항소심서 감형

17년간 지적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던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태호)는 "지적 장애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영리유인 등)로 구속기소된 A(6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인 B(54)씨 역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는 17년 남게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켰으며 장애인인 피해자의 장애인연금 일부를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항소심에서 일부 죄명이 변경됐고, 피해자에게 의식주와 병원치료를 제공한 점, 피해자 측에 공탁금 6700만원과 1억3000만원을 추가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지적장애 2급인 박모(47)씨를 데려와 2000년 봄부터 2017년 12월까지 전남의 한 농장에서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성기 꼬집고 대결레로 때리고 전남지역 초등 5학년생들 동급생 성추행·집단폭행 수사

전남 모 초등학교에서 동급생간 성추행·집단폭행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전남 모 초등학교 5학년 학생 A군의 가족은 A군이 같은 반 남학생 B, C군 등 2명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B군과 C군은 지난 3월 20일부터 지난달 초까지 쉬는 시간에 같은 반 친구 A군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바지를 내려 죄집게로 성기를 꼬집고 오줌이 묻은 걸레를 온몸에 문지르는 등 괴롭힌 혐의다. 이들은 또 A군의 허벅지 등을 대결레로 때리고, 뺨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 엄마는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희 아이 어찌하면 좋을까요'란 제목의 글을 올려 '같은 학급 같은 모듬(조)의 남학생 2명이 또래에 비해 발달이 다소 늦은(우리)아들을 구타하고, 소변기에 얼굴을 쑤셔 박는 등 말할 수 없는 조롱과 경멸, 수치를 줬다'고 주장했다. A군 엄마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1심에서 학급 분리조치를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분반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5월 20일 재심이 열린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가해 아이들과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호소했다. 해당 게시글의 참여인원은 6일 현재 7700명을 넘어섰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가해학생 등을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가해학생 등을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패러글라이딩 40대 전선 걸렸다 구조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던 40대가 착륙 도중 고압선에 걸렸다가 119와 한전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구조. ○...6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A(47)씨는 지난 5월 12시경 장흥군 장흥읍 사자산 정상 부근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이륙한 뒤 급산저수지 인근으로 착륙을 하다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전선주 고압선에 걸렸다는 것. ○...이날 오후 1시 30분경 119에 직접 신고를 해 20여분만에 구조된 A씨는 "인근 농장에 착륙하려고 했으나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패러글라이딩이 움직였다. 구조돼 다행이다"며 안도의 한숨. /장흥=김용기 기자 -충부취재본부장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역사 현장에서 독서 토론하기

책 '소년이 온다'의 내용과 의미

역사는 살아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사 이해는 몸과 실천적 차원에까지 올라가야 한다. 특히 5·18민주혁명의 역사 이해는 더욱 그러하다. 5·18민주혁명의 올바른 정신과 가치를 몸과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학자, 작가들의 강의를 듣고, 이어서 강사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 기간** 2019년 5월 23일, 24일, 30일, 31일 (총 4회)
- 시간** 오후 3시 ~ 6시
- 장소** 광주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동구 금남로 221)
- 대상** 중3+고등학생(20명) + 학부모(10명)
- 지원** 학생 1인당 4만원 교통비 지급(한 단체 당 최대 80만원 지원) + '책' 무료 배부
- 신청** ☎ 010-5205-5668 (문자로 연락 바람·단체 지원 환영)
- 교육내용**

시 간	내 용	담당강사
1 5월23일(목)15~18시	1. 인문강의 청년의 용기와 도전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한승원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2 5월24일(금)15~18시	2. 소설강의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박성천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3 5월30일(목)15~18시	책 (소년이 온다)의 내용과 의미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박성천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4 5월31일(금)15~18시	3. 조별토론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장정희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주관 | 소크라테스대화법연구소 ●주최 | 전라남도교육청 ●후원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 (사)인문지행